

1993  
4  
성도의 벗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벗 4<sup>1993</sup>



## — 표지 설명 —

프란시스코 카스텐에다 감독이  
에콰도르 오타발로 스테이크의 임바부라 와드  
집회소 바깥에 서 있다. 문에는 교회  
스페인어판 잡지인 리아호나 광고지가  
붙어 있다. “에콰도르”, 32쪽 참조  
돈 엘 설 촬영

## — 어린이란 표지 —

멜러니 섬웨이 촬영

## 일 반

대관장단 부활절 인사 .....	1
대관장단 메시지 : 부활절의 의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2
그들은 주님을 알고 있다 : 말일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함 .....	6
최후의 만찬 .....	12
주님의 은혜 진 알 쿡 장로 .....	16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크레이그 에이 카르돈 .....	22
그리스도 : 마지막 성역 구간 구스타프 도레이 목관화 .....	26
에콰도르 돈 엘 시릴 .....	32
월포드 우드럽 : 신앙과 열정의 인물 레온 알 하트슨 .....	42

## 청 소 년 란

아빠를 보내 드림 페트리샤 알 로퍼 .....	10
새로운 접근 방법 사우나 로빈슨 .....	20

## 정 기 특 별 기 사

방문 교육 메시지 : 동정 : 느낌과 행동 .....	25
교회 및 지역 소식 .....	65

## 어 린 이 란

어린이가 어린이에게 주는 선물 준 엘드리지와 루이스 엘드리지 .....	50
예수 그리스도 :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주이심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52
브랜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양 로이스 제이 핑크 .....	54
노래 :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밀라 그린우드 타이네 .....	56
새로운 느낌의 부활절 리네트 케이 알렌 .....	58
함께 나누는 시간 : 전세계의 성전 주디 에드워즈 .....	60
계란과 부활절 페기 로저스 .....	62
심심풀이 .....	64

1993년 4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팩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크트

교문 :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25권, 제30권, 제4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93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한 상 익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 현 수

© 1993년 제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의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ies.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 1993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3984 320

Printed in Korea 4/93

# 대관장단 부활절 인사

**최** 초의 부활이 이루어졌던 그 아침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하고 진한 그 소식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온 인류에게 전할 기쁨의 소식입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초현실적인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며, “저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교리와 성약 20:22~23)다고 간증한 분에게 우리의 엄숙한 간증을 덧붙여 드립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여...저들이...내 앞에 서서...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니파이삼서 27:14)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번 부활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든 분들에게 속죄의 중요성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



# 부활절의 의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저**는 어느 한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때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실체가 늘 저의 한 부분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에 대한 간증을 가지신 부모님 아래에서 성장했으며,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어느 한 개인이나 혹은 국가에 있어서 주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모든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확실히 부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활을 대비해서 착실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부활은 모두에게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화로운 부활”(교리와 성약 42:45)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온 인류에게  
가져다 주신 속죄라는  
위대한 선물을  
기억하여 성찬을  
취합니다.

부활만큼 전 인류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린도전서 15:22)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삼일째 되는 날에 “큰 지진”(마태복음 28:2)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내렸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가장 충실하였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누가복음 24:1 참조)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5~6)라고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라는 이 극적인 말씀만큼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인들의 간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몇몇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와 베드로와 그 밖의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그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맨 나중에… [바울]에게도 보이셨”(고린도전서 15:6, 8)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사십 일 동안 수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적 중 많은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요한복음 20:31)이라고 설명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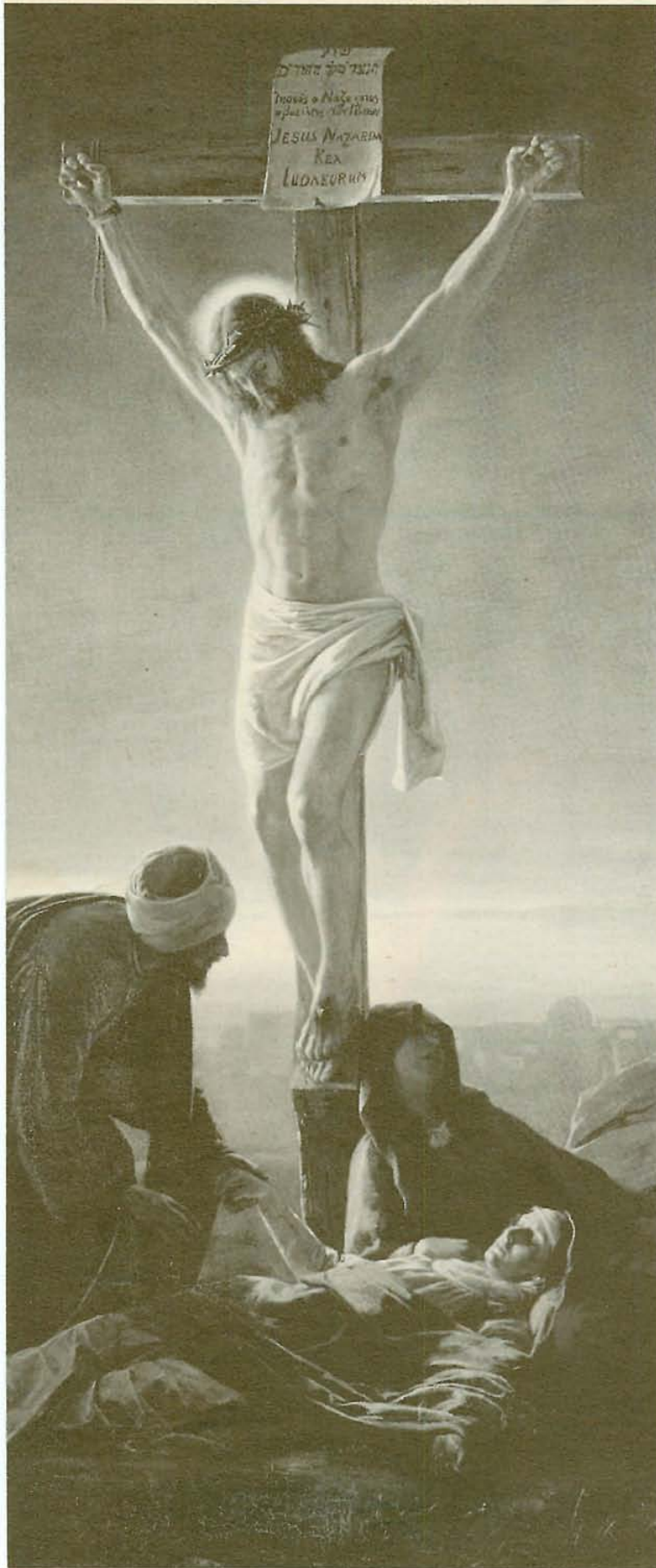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오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모인 엄숙한 자리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가셨을 때,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누가복음 24:50)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올리워 가셨으며, 구름에 가리워 제자들은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서서 하늘을 자세히 쳐다 보고 있을 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사도행전 1:11)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은 신앙심과 기쁨으로 가득찬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승천이 이루어졌으며,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와 같은 말씀을 더욱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덤이 영원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죽음이 극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직후, 몰몬경에 기록된 대로 미대륙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 현대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세상의 구속주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주님을 증거하는 말일의 한  
 증인으로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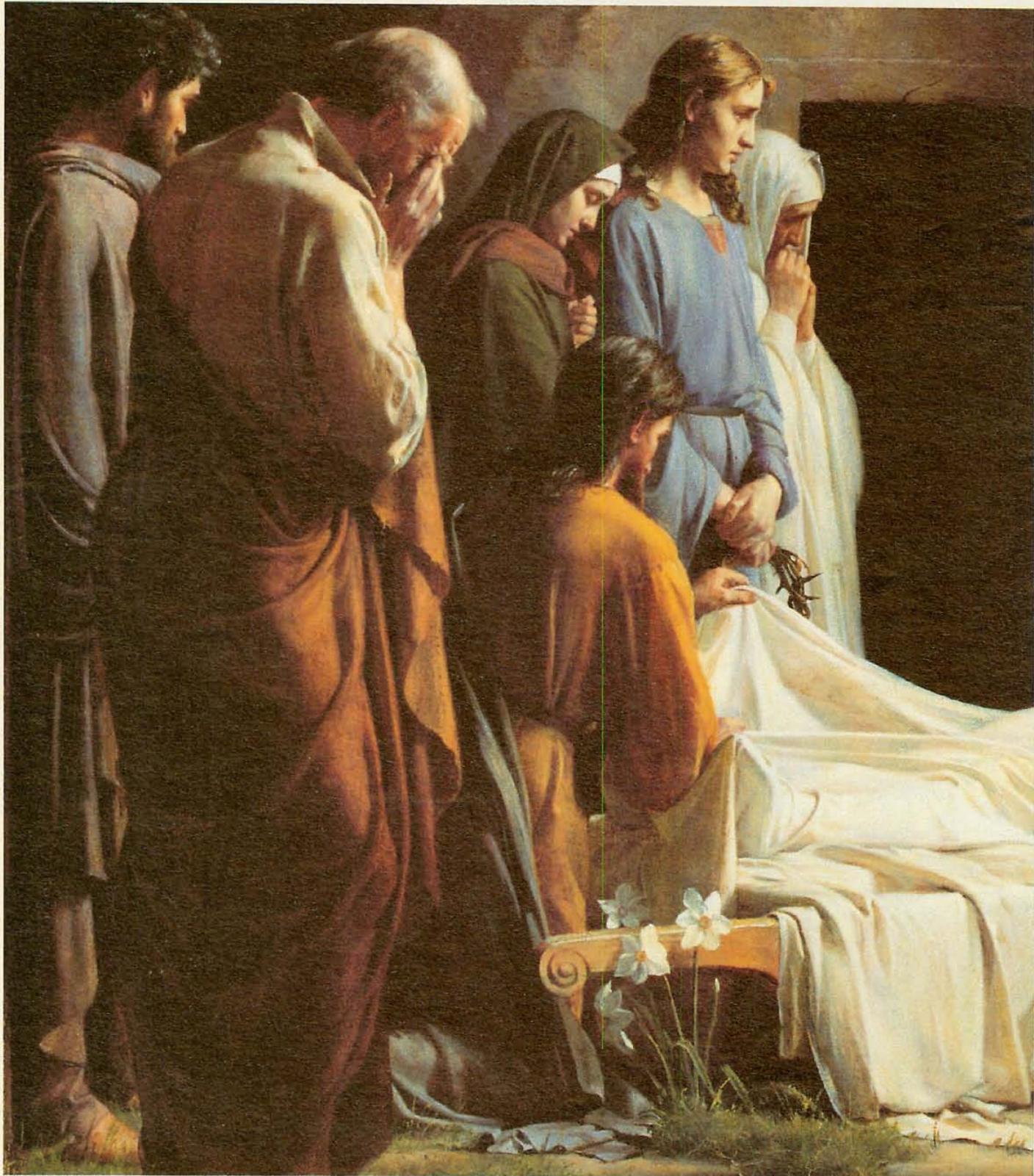
“이는 우리가... 저를 보았고”, (교리와 성약 76 : 22~23)

주님을 증거하는 말일의 한 증인으로서, 저는 그리스도  
 께서 오늘날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하신 분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화로우신 주님  
 으로서 재림하시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시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  
 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요한복음 14 : 19)라고 약속하셨기 때  
 문입니다. □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모든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확실히 부활하게 된다.
2.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신약과 몰몬경과 교리  
 와 성약에 기록된 믿을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의 간증에 기  
 초를 두고 있다.
3. 벤슨 대관장님은 “주님을 증거하는 말일의 한 증인으  
 로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  
 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간증하셨다.
4.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을 대비해서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영화로운 부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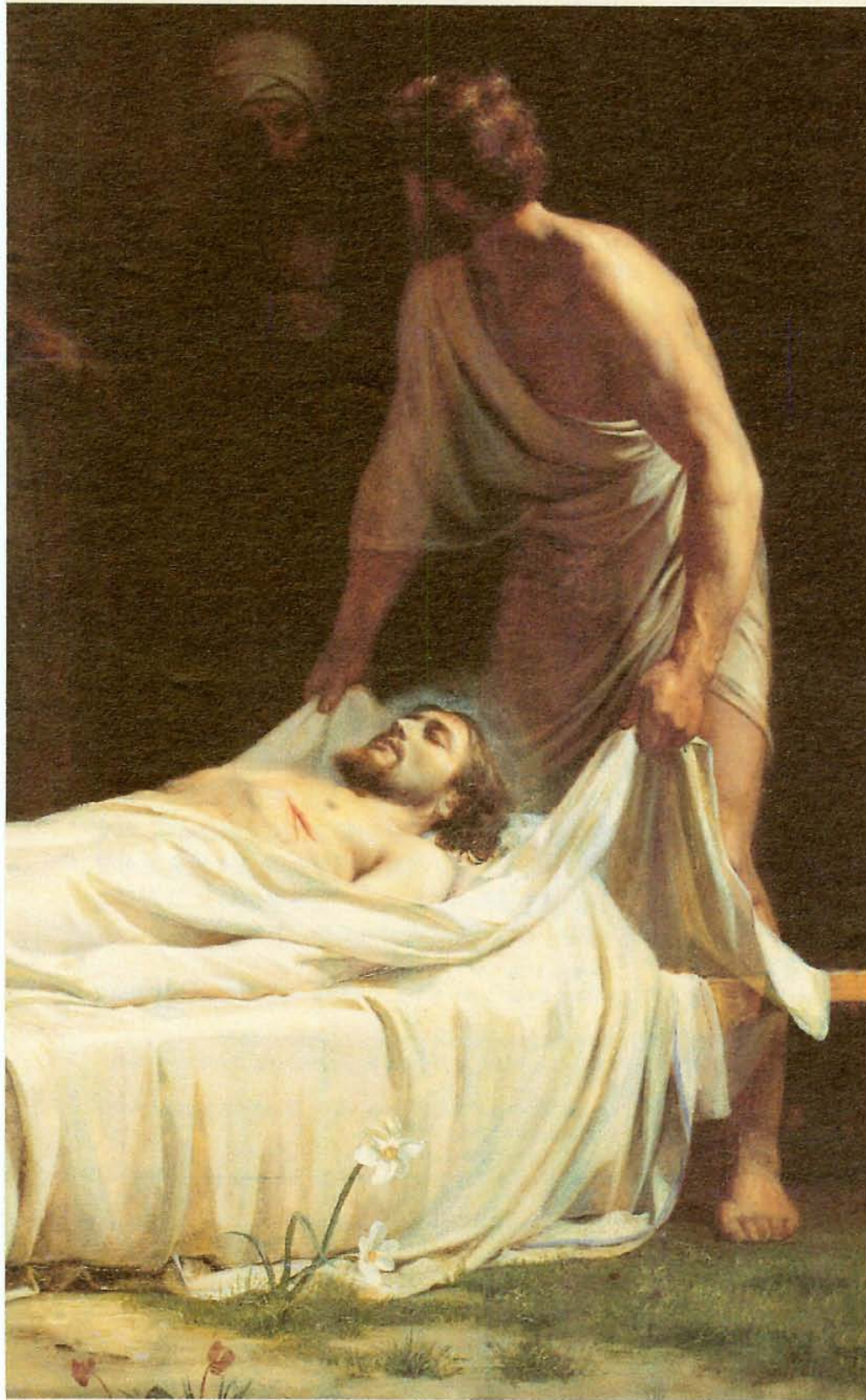
# 그들은 주님을 알고





# 있다

말일의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함



요셉  
스미스

“우리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와  
예언자들의 간증으로,  
즉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이며, 우리 종교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모든 원리는 이 원리에  
부속될 뿐입니다.”

**브리감 영** : “세상의 모든 지혜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만형제에게로 돌아가 거룩한 천사들과 승영한 존재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진 이 빛을 갖게 될 희생을 치를 준비를 하거나 또는 직접 치를 수 있는 일은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권세와 지혜를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마련하셨으며, 아들이 그 빛을 지불하셨습니다.”

**존 테일러** : “인간의 아들로서, 그분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 인내해야 하는 모든 것을 인내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 “그들이 예수를 끌고가 십자가에 매달아 영이 가련한 육신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의 영은 육신과 함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갖고 계셨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하여 저를 온전히 일깨워 주시고... 이성과 기억력이 남아 있는 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의심이나 두려움을 영원히 쫓아버렸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제 영혼의 구세주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으며,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 그리스도는 자신이 구원의 길이며 세상의 빛과 생명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 사실을 믿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선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인간 개개인을 위한 선물로서도 오셨습니다. ...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므로써 어느 국가나 지역 사회나 단체로서가 아닌 한 개개인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 “저는 격려를 받았으며, 다시 말해 제 개인적인 능력 이상으로 힘을 얻었으며 세상의 구속주께서 전파하신 영광스러운 진리를 가르치도록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던 권세를 받았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살아 계심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저는 구속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죄가 없

으신 “인자”(마태복음 9:6)를 자신의 이상으로 삼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지상에 살았던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시며, 고결성에 있어서 가장 큰 모범이 되시며 하나님과 같은 성품 및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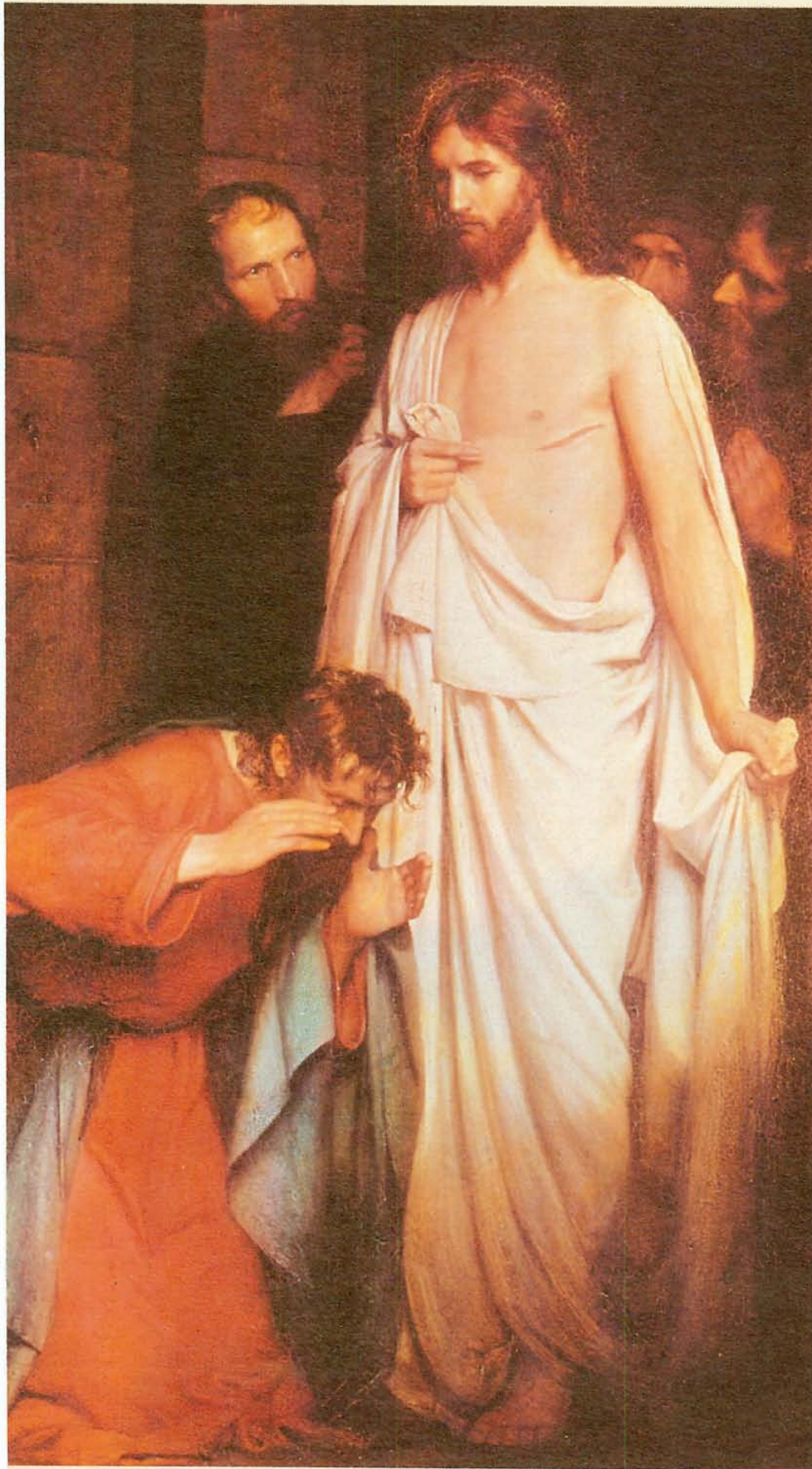
**조셉 필딩 스미스** :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자기 자신이나 부모나 자녀보다도 더 사랑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주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럴드 비리** : “성신의 권세와 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과 뼈를 가지신 육신을 입은 채로 일어나시어 오늘날 우리를 심판하시고 대변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 “주님은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을 때도 조용하고 침착하게 위엄을 잃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사방에서 밀치고 당겼지만, 주님의 입에서는 화난 음성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습시다. 그들이 주님의 뺨을 치고 온 몸을 때릴 때에도 주님은 굳은 의지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인간이 원수를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

1. 교회 경사, 3:30.
2. 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41년, 59쪽.
3. 중개와 속죄,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뉴스사, 1882년, 151쪽.
4. 윌포드 우드럽 설교집, 지 호머 더럼 편,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46년, 27쪽.
5. 프레스톤 니블리, 교회 대관장,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4년, 140쪽.
6. 임프르브먼트 이라, 1906년 8월호, 806쪽.
7. 청소년 인스트럭터, 1929년 12월호, 697쪽.
8. 우리의 지도자들의 간증, 플로렌스 그린 편찬,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58년, 47쪽.
9. 인생의 보화, 클레어 미들미스 편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62년, 210쪽.
10. 주의하심시오, 조셉 필딩 스미스 2세 편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1년, 296쪽.
11.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4년, 243쪽.
12. 연사인, 1980년 12월호 6-8쪽.
13. 연사인, 1990년 6월호, 6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의 먼지  
길을 걸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사랑이 가득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것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주님의 종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오늘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려하시며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3</sup>

# 아빠를 보내 드림

페트리샤 알 로퍼

사진 촬영 딸라니 심웨이



**엄**마는 밤늦도록 아빠와 함께 병원에 계셨다. 엄마는 우리에게 아빠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의사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는 마지막으로 아빠의 상태를 알아보려고 병원으로 전화를 거셨다. 간호원이 전화를 받더니 위급한 환자를 돌보아야 하니까 몇 분 후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때는 몰랐었지만, 그 위급한 환자가 바로 아빠였다.

간호원은 다시 전화를 해서 엄마에게 즉시 오라고 했다. 엄마와 루이스와 여동생 레베카가 병원으로 가기로 했으며, 나는 너무 지치고 걱정이 돼서 잠옷으로 갈아 입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영이 “일어나라- 너도 가야 돼.”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 음성을 무시했지만, 이번에는 더 강하게 들려서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자 엄마는 “내가 응급실로 가서 아빠를 살펴보고 곧 돌아올게.”라고 말씀하셨다.

엄마는 한참이 지난 뒤 나오시더니, “아빠의 그런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일 수는 없다. 너희들이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을 알면 아빠가 무척 가슴아파 하실거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큰 소리로 항의했지만 엄마는 단호히 반대하시면서 “안돼, 아빠의 예전 모습만 기억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엄마는 아빠가 운명 직전에 계시다는 말씀을 하실 수는 없으셨다. 나는 두려운 마음에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때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성경이 눈에 띄었다. 나는 성경을 집어 들고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으면서 다음 구절이 특히 내 주의를 끌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빌립보서 1:23)

경전 읽기를 마쳤을 때, 나는 아빠가 가셔야 한다는 것

꿈 속에서 아빠가 흰 옷을 입고 문 앞에서 계셨다. 아빠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아빠가 행복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빠는 “잘 있거라, 애들아.”하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을 알았다. 그때 루이스는 대기실에서 흐느끼고 있었으며, 막내인 레베카는 루이스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척 아프며, 병원에 와서도 아빠를 못봐 너무나 괴롭다고 말했다. 큰언니 메리앤과 두 남동생 칼과 마이클은 집에서 엄마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나 비통한 소식인가!

우리는 한동안 울고 나서 모두 소파에 앉아 잠깐씩 잠을 청했다. 그때 나는 ‘아빠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선 안돼. 아빠가 우리를 떠나게 돼서 무척 가슴이 아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 우리에게 위로라도 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일어나야 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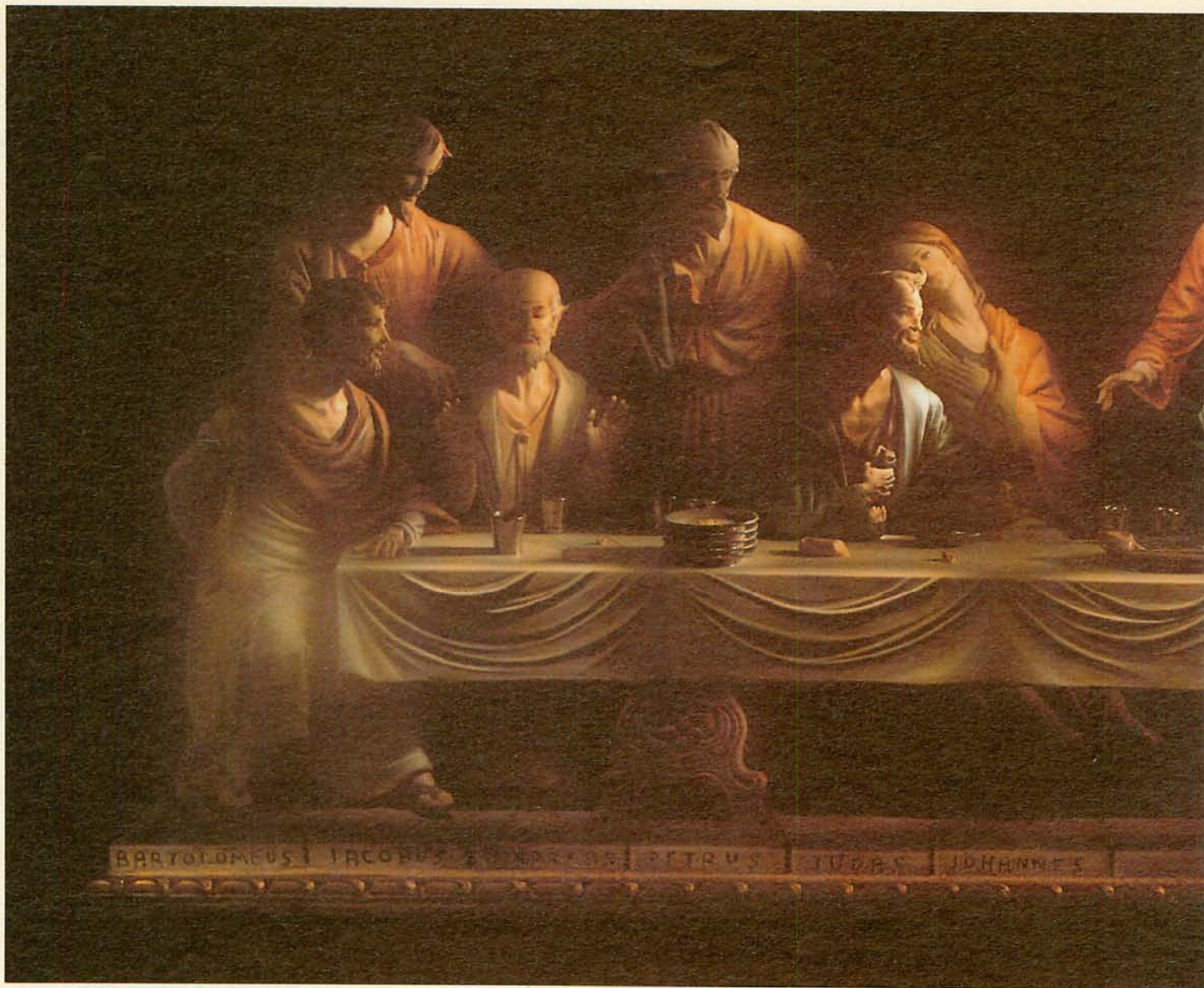
그러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아빠가 흰 옷을 입고 문 앞에서 계셨다. 아빠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하지만 나는 아빠가 행복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빠는 손을 흔드시며, “잘 있거라, 애들아.”하고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아빠를 보내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으며, 아빠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아빠는 그날 밤 늦은 시각에 돌아가셨다.

다음날 아침, 나는 내 침상에서 일어났지만 전날 밤 친구들이 병원에서 우리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것조차 잘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서 방안을 둘러보았다. 무언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어제밤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했다. 나는 다시 이미 눈물로 흠뻑 젖은 베개에 머리를 묻고 얼마간 울었다.

장례식 다음부터가 가장 힘이 들었다. 식탁 위에는 접시가 일곱 개만 놓여졌고, 밤에는 엄마가 소리를 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으며, 아빠의 의자는 텅비어 있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빠는 어디에 계신거지? 그때 꿈에서 아빠가 눈물을 흘리시며 작별 인사를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으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하는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

그렇다. 아빠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든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아빠에 대한 추억으로 우리는 위안을 얻을 것이다. 아빠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슬픔을 훨씬 더 잘 참을 수 있게 되었다. □



# 최후의 만찬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  
도들과 함께 앉으사... 또 떡  
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  
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  
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홀리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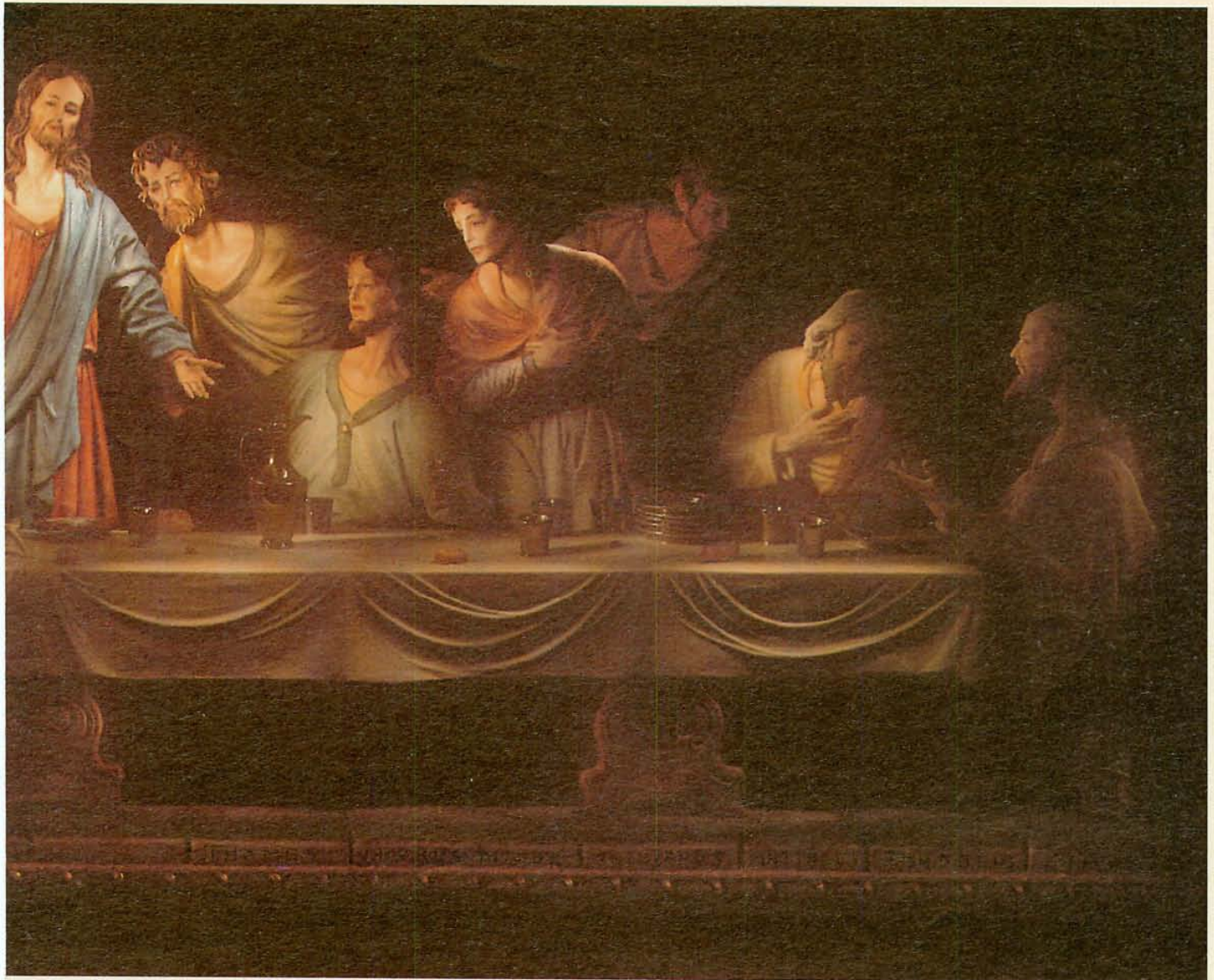


사진 촬영, 밀라니 성체이

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누가복음 22 : 14~23 참조) ❖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예술가들은 많은 자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구세주께서 그들 중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 열 두 사도들 사이에 있었던 경악감을 묘사해 왔다. ❖ 그중 어떤 예술가들은 15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그림(오른쪽)을 모방한 그림들을 그렸다. ❖ 그것을 자세히 묘사한 도자기(위) 작품이 1985년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다. 그중 몇 점 안되는






이 작품은 길이가 100센티미터이고 높이가 38센티미터이며 깊이가 40센티미터이다. ✪ 코바늘로 뜨개질해서 만든 이 작품(아래)은 유타주 미드베일에 사는 예술가인 베다 안드레이슨의 작품이다. 높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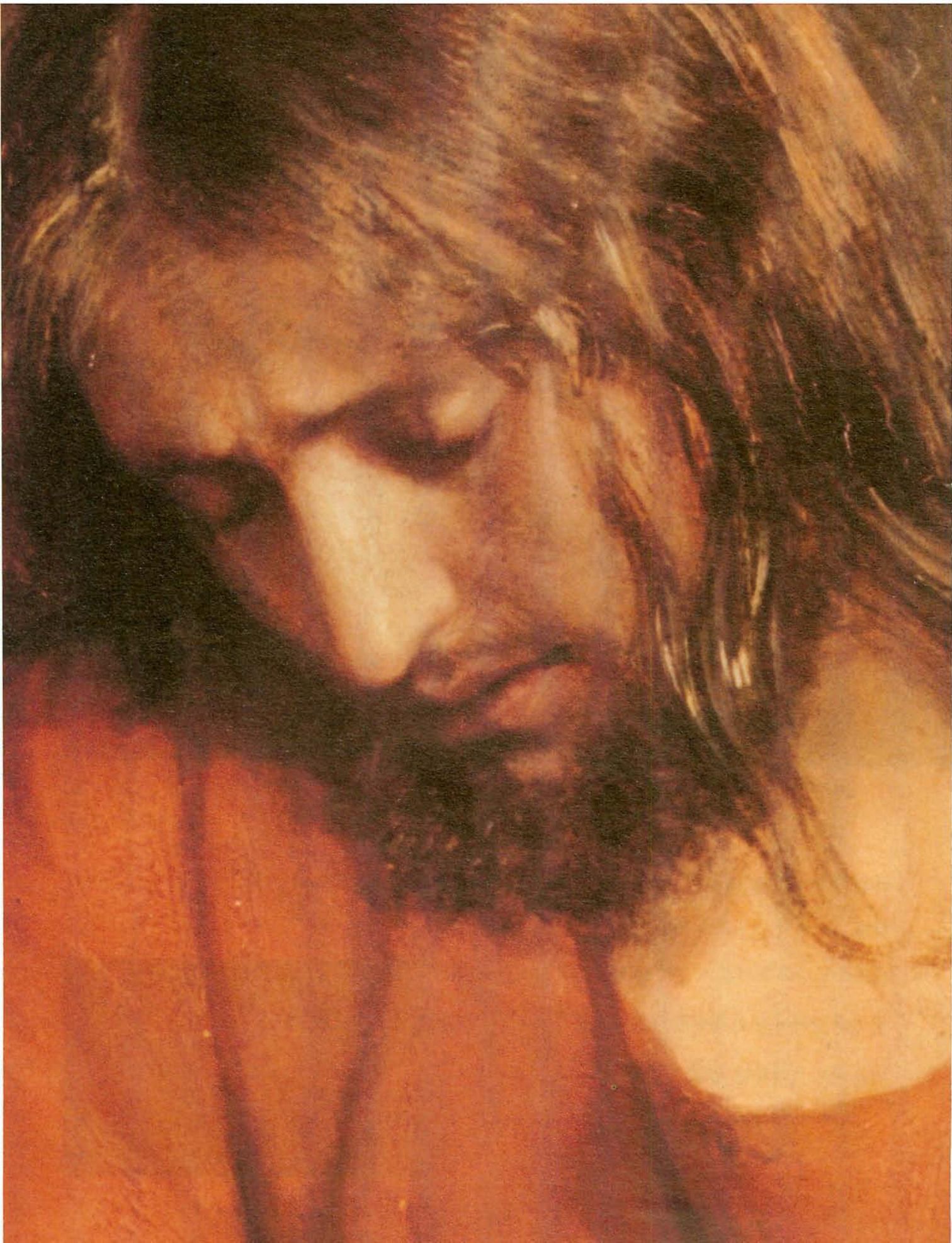
152센티미터이고 대각이 183센티미터인 이 코바늘 작품을 만드는 데 10년이 걸렸다. ✪ 뉴멕시코 산타 클라라에 살고 있는 나바호 인디언 예술가이며 귀환 선교사인 해리슨 비게이 2세가 극적인 최후의 만찬 순간을 묘사한 점토 조각품(위)의 각 부분을 매끄러





러운 돌과 손으로 문질러 만들었다. 매끄럽게 문지르지 않은 부분에 묘한 표정과 손짓이 표현되어 있다.  역시 다빈치의 작품을 근거로 하여 대만 타이페이에 살고 있는 한 회원이 만든 길이 114센티미터의 종이와 비단을 이용해 만든 벽걸이 장식(오른쪽). 현대에 만들어진 이 작품들은 현재 유타주 역사 및 예술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





# 주 님 의 은 혜

진 알 쿡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의 소망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좀더 확고히 두는 것이야말로 부활절을 가장 은혜롭게 보내는 방법이다.

**한** 젊은 친구가 내게 접견을 받으러 와서 죄로 인해 갖게 된 어려움을 고백했다. 그 친구는 그것이 대단히 심각한 죄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사탄으로 인해 자기가 선한 사람이 아니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믿게 되었다. 그는 생활의 시련과 질곡으로 몹시 힘들어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에게 따르는 마음의 평화를 상실하고 있었다. 내 친구는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부딪히는 기타의 난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나는 그 친구를 진정시키려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와 범법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다고(모사 이야기서 14:4~5, 11; 엘마서 24:10 참조)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주님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고 “인간의 질병을 대신하며”, “그의 백성을 위하여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시고 “인간들의 연약함을” [강화시키려고] 오셨다고도 말했다.(엘마서 7:11~12 참조)

나와 더불어 경전을 읽어가는데 이 청년은 그리스도께서는 일반적인 죄는 물론이고 슬픔과 죽음과 질병, 불편한 마음, 죄책감 및 고통 등도 대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무척 상기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각자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온갖 문제와 어려움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된 일이다.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도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규정하는 경전상 용어로는 은혜가 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용어이다. 내가 아는 한 은혜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정의는 아마도 “가능하게 하는 힘”, 즉 주님이 만사를 성취하도록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란 뜻일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기꺼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성장하도록 명하셨음을 알고 있다.(교리와 성약 93:1~20 참조)

나는 다음과 같은 성구에 감명을 받는다. “...주님의 자애로운 친절을 이야기할 것이요, 주의 은혜와 자애로운 친절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내려 주시는 모든 것을 들어 영원토록 이야기 하리라. 저는 그들의 모든 고난을 겪으셨으며

주 앞에 있는 천사가 저들을 구원하였으니 주께서 사랑과 자비로 저들을 구속하셨고 아득한 옛날부터 시종 저들을 업어 주셨으며 데리고 다니셨느니라.”(교리와 성약 133 : 52~53)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함께 고통을 겪으시고, 천사를 보내 우리를 도와 주시며, 우리가 알든 모르든 매일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있음이 분명한 듯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한다.

나의 그 젊은 친구도 처음에는 그랬듯이, 사람들 중에는 생활중에 이러한 특별한 능력 또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이를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리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 1.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가라앉은 뒤 그리스도께서 하

신 말씀은 그 의미가 참으로 명료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마태복음 14 : 31)

베드로는 의심을 함으로써 물위를 걸을 때 그를 지탱시켜 주었던 힘을 잃게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도움을 간구하는 중에 우리는 의심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권세를 스스로 부인하는 잘못을 범하는가?

반면 주님은 신앙의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로마서 5 : 1~2)

나와 더불어 경전을 읽어 가는 동안 이 청년은

그리스도께서는 일반적인 죄는 물론이고 슬픔과 죽음과 질병, 불편한 마음, 죄책감 및 고통 등도 대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무척 상기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 2. 회개하는 마음으로 느끼는 겸손함

우리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야고보서 4:6)고 배웠다.

주님은 다른 경전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흠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이디서 12:27)

우리는 겸손해지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고양시켜 주시며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 주시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만사에 있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나의 그 짧은 친구가 당면했던 문제는 일상적인 성격의 것들이다. 때때로 말일성도들은 교회 회원이 되는 것만으로 그러한 시련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 볼 때 교회 회원들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크다고는 할 수 없을망정 그들이 겪는 만큼의 시련은 겪는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교리와 성약 95편 1~2절에 나오는 다음의 내용은 참으로 권세있는 말씀이다. “너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라. 이는 징계함으로써 저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유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니, 이전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왔음이니라.

“그런고로 너희는 징계를 받아야만 하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주님은 항상 내가 유희로부터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시며, 시련을 겪는 중에는 그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는지언정 항상 날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셔서 기쁘다.

주님은 또한 은혜를 받는 과정에 회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셨다.

“비움진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인간들에게 회개와 선행을 이루게 하시며, 그리하여 저들이 각각 그 행한 행위대로 은혜를 이루게 하시옵소서.”(힐라맨서 12:24)

우리는 은혜의 힘을 얻기 위해 회개해야 하고, 모두가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네게 재물을 바치되, 애 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라...

“누구든지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 이를진대, 내가 저를 받아들일지니... 그러므로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나아와 구원을 받으시라.”(니파이삼서 9:20, 22)

## 3. 희생,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함.

사람은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권고 하였음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니파이서 25:23)

주님이 남녀노소나 신앙이 약하고 강하고를 초월해 모든 사람을 도우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기 보다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는 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은혜로운 원리라 하겠다.

## 4. 계명에 순종함.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기록된 성구가 많이 있다. 사람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기 위해 즉시 완벽해 질 필요는 없으나 마음이 겸손해야 하며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나면 주님은 도와 주실 것이다.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받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내 안에서 영광을 누릴 것임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리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아들여 진리로 영광을 얻으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93:20, 28)

우리가 부활절의 참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크신 선을 좀더 완전히 깨닫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소망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좀더 확고히 두는 것보다 부활절에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더 훌륭한 소망은 없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요한계시록 3:20) □

# 새로운 접근 방법

나는 내 자신의 간증을 얻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결정을 내렸다.

샤우나 로빈슨

고등학교에 다니던 어느 날 나는 부모님의 간증에 의지하는 대신에 내 자신의 간증을 얻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복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알게 해달라는 간구를 했다. 그리고 나서는 침대로 뛰어들어 잠을 청했다.

그후에도 나는 같은 일을 반복해 나갔다. 물론 간증을 얻지 못했음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나는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그저 기도만 하고 잠자리에 드는 대신에, 기도를 드린 뒤 무릎을 꿇고 응답이 오길 기다렸다. 그러나 기다리는 응답은 오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인가를 해야 했다. 물론 경 읽기를 막 끝마쳤다. 내가 읽은 물론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계속하여 간증을 얻었지만 나는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어딘지 불공평해 보였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던 말

인가?

그러던 어느 날 밤 교리와 성약 9편 7절을 읽게 되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이윽고 나는 아주 그릇된 방법으로 간증을 얻으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저 간증이 내게 주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대신에, 직접 이를 찾아야 했다.

간증이란 주제에 대해 내가 참조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찾아보고, 감독님과도 말씀을 나누었으며,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를 했다.


경전을 공부하고 금식을 한 뒤, 나는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렸다. 간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첫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는 생각은 잘못이었다. 교리와 성약 9편 7절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것이 비록 간증이 아니었더라도, 내가 스스로 간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었던 것이다. □









#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크레이그 에이 카르돈

“**왜** 아직까지도 제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내 사무실에 앉아 있던 자매가 질문했다. 그녀는 고민에 빠져 있었으나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던 중이었으며, 이 자매는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문제에 관해 조언을 구하려고 날 찾아왔던 것이다.

그 자매는 몇 년 전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했다. 그 후 합당한 신권 지도자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과 교회 및 관련 당사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라는 권고에 따랐으며, 그 뒤로부터 생활이 변화되어 현재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이 이따금씩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그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58:42 참조) 하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하고 있다

.....

엘마 이세처럼 지은 죄를 기억하여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구세주의  
구속은 우리의 고통을 없애 줄 수 있다.



필서트리프 사진 촬영, 모델이 포즈를 취함

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가 온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주님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을 얼마나 더 해야 하나요? 주님께서 절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자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나는 그녀가 회개했고 순종하고 있으며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윽고 나는 그녀에게 경전을 펴도록 권유했다. 우리는 함께 서로 용서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었다. 나는 만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면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 자매는 서로를 용서한다는 원리를 수궁하기는 했으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다른 경전 말씀에도 역시 비슷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 자매는 위안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 읽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인도해 주시도록 속으로 기도는 드렸으나, 성령이 커다란 권세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지는 확신이 가질 않았다. 나는 물론 경 엘마서 36장을 읽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이 구절은 내가 경전 학습 계획에 따라 개인적으로 읽고 있던 부분이었다.

나는 그 자매에게 엘마 이세가 아들

힐라맨에게 한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 보라고 했다. “내가 이처럼 지은 죄를 기억하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러 세상에 내려오시리라고, 나의 부친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들었던 일을 기억하였느니라.”(17절) 이 성구는 마치 그녀에게 주어진 것처럼 들렸다. 엘마가 자신의 죄를 기억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도 기억했다는 사실이 흥미를 끌었다.

그 자매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내가 마음 가운데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쓰디쓴 고통에 빠져 있고, 영원한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18절) 이 자매의 부르짖음은 엘마의 그것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었다.

이어서 그녀가 19절을 읽었다.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죄를]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나는 그 부분을 다시 읽었다. 그녀가 성구를 잘못 읽은 것이다! 죄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녀에게 그 성구를 다시 읽어 보라고 부탁했다. 성령이 내게 그녀가 자신을 것처럼 고민에 빠지게 했던 문제에 관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속삭여 주었다.

그 자매는 책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말없이 그 성구를 반복해서

읽었다.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기 시작했다. 음성을 가다듬기가 힘든 상태였지만 그녀는 소리를 내어 “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음을 기억하노니, 진실로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되었으며”하고 읽었다.

그녀의 눈은 고뇌가 아니라 기쁨과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눈물로 가득했다.

그 일이 있던 뒤로 수년 동안 나는 주님께서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도록 누군가를 축복하시는 데에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여러 번 갖게 되었다.

그러한 경험과 엘마서 36장을 통해 나는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주님과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날 때도 있겠지만, 구속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실로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엘마처럼 다음과 같이 느낄 수 있다.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엘마서 36:20) □

## 방문 교육 메시지

# 동정 : 느낌과 행동

**경**전에는 예수님이 비탄에 잠겨 있던 어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소생시키시기 전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 (누가 복음 7:13)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정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의 한 중요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동정이란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을 자신도 느끼고 그를 도와 주는 능력이다.

바울은 동정심이 많은 성도들로 구성된 회중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 12:26)

**우리는 경청하고 같은 느낌을 가져 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정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게 된다. 때때로, 특히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경우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가 힘들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기만 해도 참된 동정심을 갖는 것이다.

젊은 아내와 사별한 한 형제는 자신에게 이러한 동정심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 죽은 제 아내가 생각나는군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때때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말이지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간혹 그저 원하는 대로 구매받지 않고 아내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물

론 그것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고독이나 소외감은 그보다 훨씬 더 견디기 힘듭니다. 아내를 생각하면서 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케빈 피츠워터, *엔사인*, 1992년 6월호, 57쪽)

•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던 때에 관해 생각해 본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을 받았는가? 경청해 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는가?

### 동정심은 행위임

때로 동정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 그에 대한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상호부조회 회장을 맡고 있는 로이스 포터 자매는 병원에 입원중인 한 연로하신 자매를 방문했다. “제가 그분께 무슨 일을 해드릴까 여쭙 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시더군요. 하지만 무슨 걱정거리가 있

필 서트리프 사진 촬영



나고 여쭙자 그분은 잔디밭과 고양이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안해 주셨더라면 아마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분의 잔디에 물을 뿌리고 고양이에게 먹이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 사항에 대해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더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야고보서 2:15~16)

베네주엘라 카라카스의 자매들은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양로원을 방문했을 때 동정심을 갖고 행동했다. 그들은 그곳에 계시는 할머니들과 함께 나누려고 다과를 준비해 갔으나, 헝클어진 머리와 몸에 입은 것이라고는 거의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는 노인들을 보자,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곧 행동에 들어갔다. 그들은 옷가지를 모아서 할머니들에게 옷을 입혀 드렸다. 그리고 나서는 세수와 목욕을 시켜드렸고 머리도 빗어 주었다. 할머니들에게 본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게 해준 뒤 자매들은 그분들의 손을 잡아 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며 준비해 간 다과를 나누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오늘 여러분이 동정심을 가지고 경청해 줌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오늘 여러분의 동정어린 행동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 그리스도

## 마지막 성역 주간

목판화 : 구스타프 도레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요한복음  
12 : 12~13)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9 : 45~46)

**앞**서 간행한 성도의 벗에서 (1992년 12월호) 우리는 프랑스 미술가 구스타프 도레이(1832~1883)가 제작한 목판화를 삽화로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명에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부활절기를 맞이해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베푸신 성역의 마지막 한 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회복된 복음은 구세주의 고통과 사망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해 준다.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엘미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구세주께서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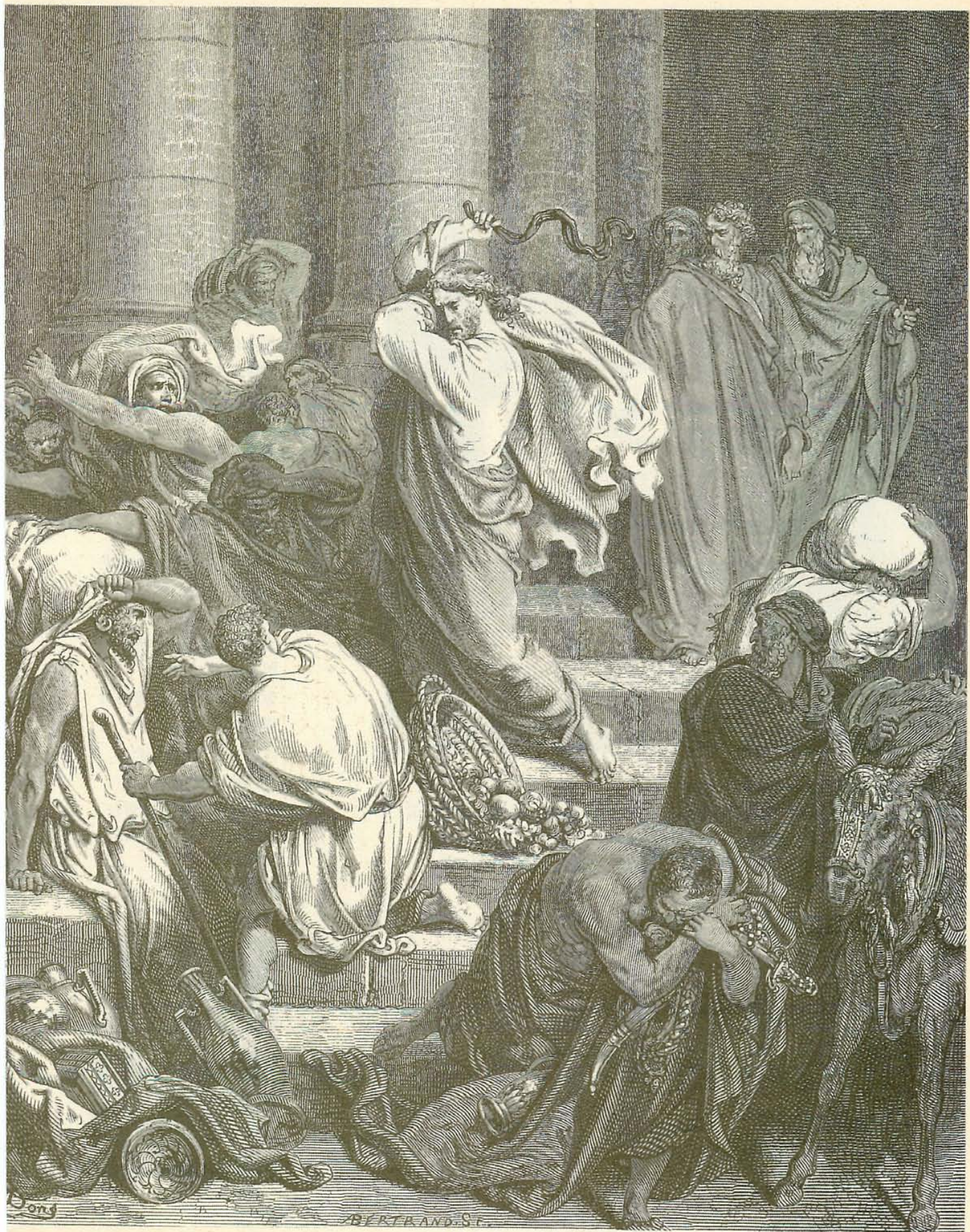
“또한 그는 그의 백성을 엮어 맨 죽음의 사슬을 푸시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요,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함이었느니라.”(엘마서 7 : 11~

12)

후일 구세주께서도 몸소 니파이인들에게 구속이 자신의 복음의 정수라고 가르치셨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내 앞에 서서 선약간에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니파이삼서 27 : 13~15)

“창세 이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모세서 7 : 47)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알고 계셨다.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하셨을 때 아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브라함서 3 : 27)라고 대답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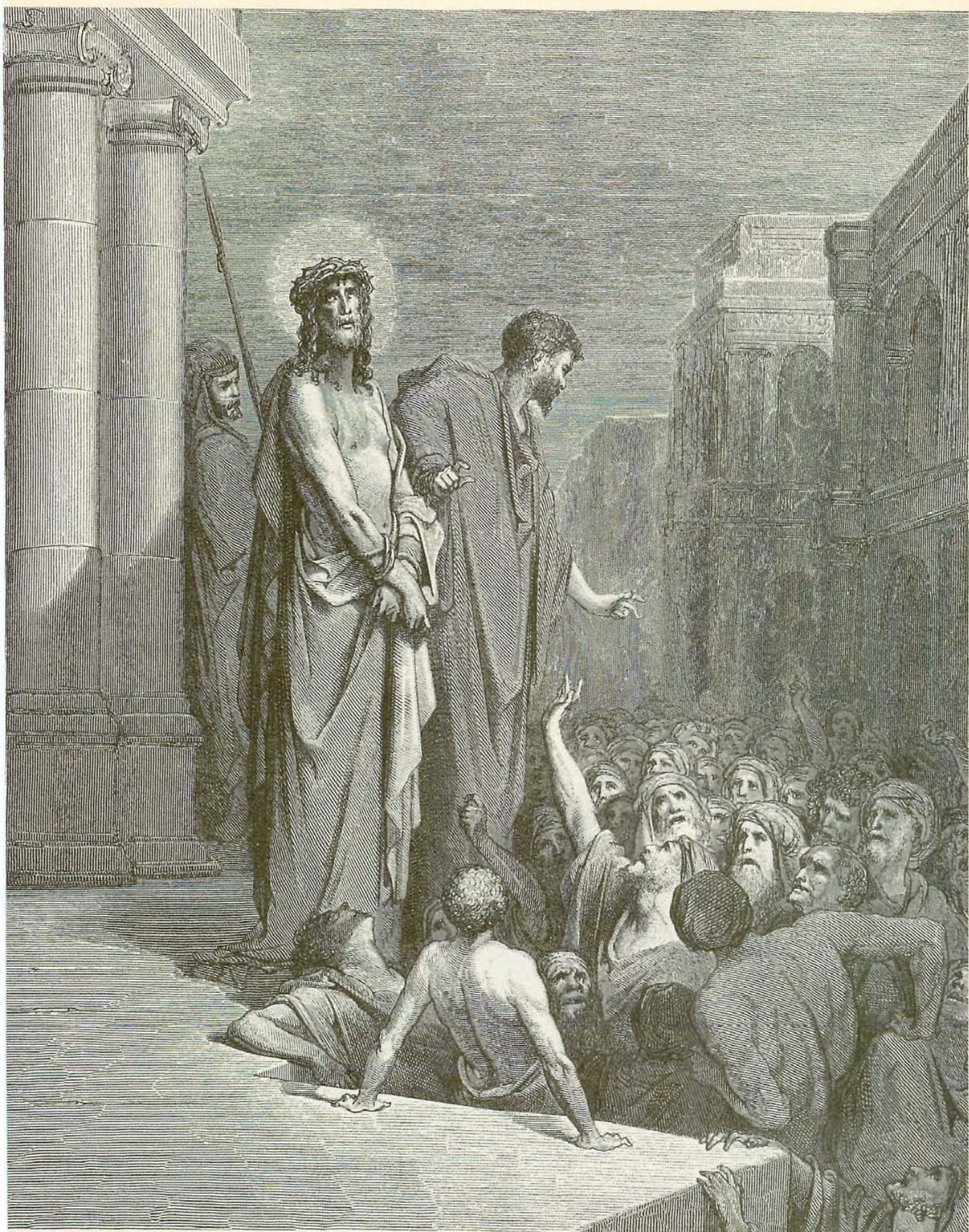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 : 26~28)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시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마태복음  
 26 : 39~40)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요한복음  
 19 : 14~15)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누가복음  
23 : 33)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를 거기  
두니라(요한복음  
19 : 40~42)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사도행전 1 : 7~9) □



# 에

# 콰

# 도

# 르



돈 엘 시릴

에콰도르 성도들은 “지구의 한가운데” 신앙의 중심이 있음을 보여 준다.

**에**콰도르의 키토나 과야킬에서 신문을 펼쳐 보면 십중팔구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개발 자원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나 프로그램에 관해 접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미개발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한편 영적 자원에 있어선 더 한층 풍부한 나라가 에콰도르이다. 에콰도르가 여러 가지 천연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이 나라의 영적 자원은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조용히 그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러한 영적 자원은 이 나라 전역에 걸쳐 있는 말일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

• 키토에 사는 호세 트루히요의 집에 들어가 보면 정면으로 보통의 집의 거실에 해당하는 커다란 방을 보게 될텐데, 이곳은 교회 일을 하도록 헌납된 사무실이다. 여기서 에콰도르 콜론에 있는 키토 스테이크 축복사인 트루히요 형제는 축복사의 축복을 준다.

트루히요 가족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들어온 다음해인 1966년에 침례받았다. 에콰도르에서 말일성도가

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시련과 역경은 복음이 안겨 주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트루히요 형제는 말한다.

트루히요 형제와 자매는 가족에게 복음에 온전히 참여할 것을 가르쳐 왔다. 트루히요 가족의 열 자녀 중 다섯이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현재는 손자 손녀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트루히요 형제는 에콰도르의 현재 발전 상태는 회복된 복음을 위해서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 “복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65:2 참조)

• 오타발로에서 먼지나는 비포장 도로를 따라가다가 마을 끝에서 조그만 옥수수 밭을 지나면 방이 둘 뿐인 작은 집에 이르게 된다. 오타발로 에콰도르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후안 호세 무뇨스는 이곳에서 아내

.....  
위쪽 : 에콰도르 오타발로에서 직조된 전통 벽걸이. 오른쪽 : 라우로 암베르라와 그의 가족이 집화상에 사용하는 트럭 앞에서 있다.



오른쪽 : 세사르 우고 카광오(11세)와 그의 형제들인 후안 파블로(9세)와 리카르도 안토니오(7세).

맨오른쪽 : 파오라. 아래 : 키토시 교회 배부 센터 책임자인 헨리 오르티스.

라우라 및 다섯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무뇨스 자매는 소속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이다.

무뇨스 가족은 1986년에 페루의 리마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다. 무뇨스 부장은 주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년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그곳에 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의 절반을 저축했다. 또한 얼마 안되는 재산의 일부를 정리하기도 했으며, 그래도 부족해서 20달러를 빌려야 했다. 1988년에도 그와 똑같은 노력을 하여 또다시 성전을 다녀왔다.

무뇨스 부장은 말일성도들은 복음이 주는 온전한 축복을 이해하기 위해 성전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에콰도르에 성전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는 이유입니다.”

• 과야킬에 살고 있는 라우라 게레로 자매가 앉으라고 권유하면 그 자매의 세미나리 교재에 유의해야 한다. 그녀는 망가진 탁자를 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의자 하나를 책상으로 쓰고 있다.

게레로 자매가 여섯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진흙 벽돌집의 거실에는 나무 의자 몇 개 외에는 이렇다 할 가구가 없다.(올해 열 아홉 살된 아

들은 선교 사업 비용을 벌기 위해 멀리 볼리비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과야킬 가운데 이 지역은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으며, 커튼을 쳐서 잠 자리를 구분짓는다. 그렇지만 정면의 큰 방은 게레로 자매가 세미나리 반을 갖기엔 충분하다.

게레로 자매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관직에서 일하며, 수입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법을 공부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 에콰도르 과야킬 남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듯 바쁜 일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세미나리 공과를 가르치는 일을 소중히 하고 있다. 아침에 세미나리 공과를 한 후 아침 일찍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저녁 시간에 한번 더 세미나리를 가르친다. “젊은이들을 돕는 기회를 갖는 것이야말로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라고 그녀는 이야기한다.

#### 부를 활용함

회복된 복음이 에콰도르에 상륙한 때는 1965년이였다. 그해 10월 9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스펜서 더블류 김볼 장로는 키토의 한 산정에서 이 땅을 헌납하면서 에콰도르 국민들이 “삶을 변화시키며 주님이 마련하신 훌륭한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김볼 장로는 에콰도르의 토착 인디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열망해 왔던 영화로운 복음의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안데스 선교부 역사, 1965년 10월 9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렸다.

교회는 처음에는 성장의 속도가 느렸다. 하지만 해안과 에콰도르의 인디언 주요 거주지 등 여러 지역에서 영적인 자원이 개발되면서 교회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다.

오늘날 그곳에서는, “복음이 제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회원들의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을 수가 있다. 이것은 김볼 장로가 드린 기도의 메아리라고도 할 수 있겠다.

현재 에콰도르에는 11개의 스테이크와 3개의 선교부 산하에(과야킬 북부, 과야킬 남부 및 키토) 9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성전이 세워질 예정이다. 회원 수는 연간 약 9%씩 증가하고 있고 매달 수백 명, 때로는 천 명이 넘는 새로운 회원이 교회에 가입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대다수의 회원들은 자동차나 전화가 없으며, 가족이 차를 타고 교회 모임에 가려



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구직을 하거나 또는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서 가족과 한동안 떨어져 지내거나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성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충실하게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

복음과 그것이 주는 축복은 어디를 가나 동일하지만, 키토와 오타발로 및 과야킬의 회원들의 현실 생활에는 큰 차이가 있다.

### 키토 .....

키토의 오래된 시가지 주변에는 스페인 통치 시대의 전형적인 건축물과 더불어 식민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지만 이곳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는 은행과 휘황한 상점들 및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들이 국제적인 도시 감각을 더해 주고 있다. 이곳의 키토시는 적도에서 남쪽으로 불과 몇 킬로미터의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란 이름은 적도 "equador"에서 유래되었음) 기온이 온화하다. 키토의 고속도로 표시판은 "지구의 한가운데"로 이르는 길을 지적해 주고 있다.

키토는 물론 키토가 위치해 있는 시에라고 종종 일컫기도 하는 안데스



교회는 전통주의로 이름이 나있다. 이 나라 역사의 대부분은 여기가 발원지이다. 또한 일부 교회 회원들은 에콰도르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거의 처음부터 지켜 본 산 증인들이다.

1968년에 침례받은 세사르 카광오 형제는 “현재의 발전 추세로 봐서 앞으로 더 빠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는 주일학교 교사에서부터 선교부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름을 받았다. 현재는 에콰도르 과야킬 지역 대표이지만 남미 북부 지역 사무실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키토에 거주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교회의 성장은 한편 극복해야 할 과제를 함께 가져 왔다. 이러한 사례의 하나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회원들이나 자신이 지도자로 봉사할 수 없으리라고는 전혀 기대한 적이 없는 회원들에게 지도력과 봉사에 대해 가르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들 수 있겠다. 보통사람의 경우보다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부유한 사람들의 방문 교사나 가정 복음 교사로 임명되면 자신들이 해줄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방문을 하지 않는 회원들이 있다.

카광오 형제는 교회 회원들이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이러한 난제를



맨 왼쪽 : 집 뒤에서 자신이 직접  
운전하고 있는 양말 직조기와 함께  
있는 오타발로 라틴 지부의 미리암  
가르시아. 그녀의 수입은 선교  
사업중인 남동생을 돕는 데 쓰인다.  
왼쪽 : 임바부라 와드의 프란시스코

카스텐에다 감독. 아래 : 에콰도르  
오타발로 스테이크 소속의 호세  
카스텐에다와 마리아 카스텐에다는  
교회가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지도자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하면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육적으로도 변화된다고 설명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악습을 없애고 자신과 가정을 더 한층 청결하게 유지한다. 또한 복음 공부를 통해 교육열과 능력을 향상시키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됨에 따라 가족과 교회와 지역 사회를 돕는 좀 더 능력있는 지도자로 발전하게 된다.

오늘날 키토의 회원들에게서는 일종의 생동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들의 신앙 또한 활력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 지역 사무실의 탁자 위에 있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라는 표어에서도 많은 회원들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마르코 캐냐르와 피에다드 캐냐르 가족의 경우에서 이같은 헌신을 엿볼 수 있다. 캐냐르 형제는 에콰도르 키토 산타 아냐 스테이크의 축복사이며 캐냐르 자매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캐냐르 부부의 장남인 루이스와 딸 루스는 선교 사업을 했으며, 나머지 아들들인 블라디미르, 하비에르, 다비드 및 마이클 역시 선교사로 봉사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작은 아들들은 학교 친구들이 그들의 신앙에 대해

알고 있으며, 신앙에 대한 자신들의 헌신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영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늘 엄숙한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예를 들면 가정의 밤을 마치고 갖는 게임 중에 블라디미르는 손에 물잔을 들고 마이클 앞에 선다. 마이클이 문제에 신속히 답하지 못하면 블라디미르는 마이클의 얼굴에 물을 끼얹는다. 이 게임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벌칙에서 제외될 수 없다.

그레이스 토레스는 복음에 헌신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귀환 선교사인 토레스 자매는 화장품 회사에서 상담역을 맡고 있는데, 독자적으로 수공예품 수출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 그녀는 음악, 무용 및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이 포함된 교회 청년 독신 성인 활동에 열심히 참석한다. 그와 같은 활동은 개인을 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여러 쌍이 결혼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것을 보면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독신 성인들은 말일성도 배우자를 찾기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을 시사해 준다고 토레스 자매는 설명한다.

토레스 자매의 말에 의하면, 일부 독신 성인들이 복음에 따라 생활하지

않음으로써 활동이 저조해지기는 하나, 키토에 있는 독신 성인들은 서로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한다.

토레스 자매의 설명에 따르면,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키토에도 정도에서 벗어나 있거나 온전한 축복을 거부하는 회원도 있지만, 복음을 안지가 채 30년도 안된 이 지역에는 헌신적인 말일성도들을 지지하는 신앙과 우정 증진을 위한 폭넓은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 오타발로

적도의 북쪽에 인접해 있는 오타발로는 키토와는 다른 반구상에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다른 반구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곳의 지배적 문화는 오타바레뇨스라고 하는 오타발로 인디안 문화이다. 이곳은 전통적인 오타바레뇨 직물 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공업용 재봉틀과 전자동 직조기가 수입되면서, 다채로운 스웨터와 판초 및 핸드백을 만드는 노동 집약적인 전통 수공업이 대신하게 되었다. 오타발로 사람들은 대부분 에콰도르 전역은 물론 다른 나라에까지 자신들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수완이 뛰어나다.

오타발로 회원들은 자신들을 “레이맨인”이라고 지칭하며 유럽계와 인디

오른쪽 : 푸카라의 집 밖에 있는 루이스 알베르토 카광오 형제 가족. 그는 지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맨 오른쪽 : 에콰도르 오타발로 스테이크의 한 회원은 스테이크 대회가 시작되길 고대하고 있다. 아래 : 집사 정원희 회장인 알렉스 발렌수엘라를 포함한 프레디라 와드의 회원들.

언계가 혼합된 회원들을 “라티노스”라고 부른다. 라티노스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 에콰도르의 여타 지역에서는 이러한 호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그러한 구분에 개의치 않는 것 같다. 오타발로 스테이크 회원들의 약 25%는 라티노스이며, 이 스테이크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라틴 지부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오타발로 언어인 키추아를 구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스테이크 산하의 다른 지역 회원들 중 약 25~30%가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른다.

스테이크 대회에서 레이맨인 및 라티노스 회원들은 서로 형제 자매로서 따뜻한 인사를 나눈다. 호세 알베르토 피와시 스테이크 부장은 다음과 같은 스페인어로 대회 말씀을 시작한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대회가 계속되는 동안 대부분의 말씀은 키추아어로 진행되며 경전을 인용하거나 간증을 할 때, 스페인어를 약간 사용하는 회원도 있다.

토요일 오후 지도자 모임에서 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무뇨스 부장은 지도자들에게 15분간 연차 대회 말씀을 경청하도록 권유했다. 스페인어 통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회원도 있지만, 무뇨스 부장은 “우리는 그곳에 임재하는 영을 느낄 수가 있습

니다.”라고 말했다.

라우로 암베르라와 그의 아내 루시라와 같은 오타발로의 회원들에게 복음은 영의 영향력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준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데 애를 먹었다고 암베르라 형제는 회고한다. 하지만 영이 그들의 메시지가 참됨을 증거하자 “저는 침례를 받게 복음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따르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요일에 자신이 운영하는 상점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고객을 잃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오히려 장사가 더 잘되었다.

암베르라 형제 부부는 교회에 들어온 이후로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암베르라 자매는 담당 지역의 자매들이 요리와 기타 기본적인 가사 기술 등 실용적인 것들을 배우도록 돕는데 관심이 깊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일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호세 피나 카광오 자매는 방문 교사들을 통한 지속적인 접촉이 회원들이 이러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 이유는 상당수의 회원들이 오타발로 외곽의 시골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 교사와 지도자들은 이곳의 회원들을 방문하기 위해 보통은 걸어가야 한다.

예를 들면, 카광오 자매의 남편인 루이스는 푸카라 지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곳은 북쪽으로 펜 아메리칸 고속 도로를 따라 수킬로에 걸쳐 있고 동쪽으로는 5~6킬로나 떨어진 산기슭까지 연해 있다. 대부분 회원들은 걸어서 모임에 참석한다. 교회가 마련해 준 자재로 지은 협소한 표준 예배당은 말일성도는 물론이고 기타 거주민들 사이에 하나의 자랑거리이다.

어떤 측면에서 루이스 카광오는 푸카라 전체를 위한 지부장이라고 하겠다. 그는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한다. 그는 실용적인 면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다. 카광오 형제는 작은 트럭을 몰고 오타발로에 갈 때면 늘 푸카라 사람들을 태우고 간다. 또한 돌아오는 길에는 사람들이 부탁한 생필품을 실어다 주기도 한다.

이곳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봉사할 기회를 스스로 찾는다. 때로는 집 가까이에서도 봉사할 기회를 찾는다. 미리암 가르시아는 오타발로 와드의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이지만 라틴 지부에 참





여한다. 그녀의 자택 뒤에 있는 한 상점에서는 전기 직조기 몇 대가 에콰도르와 페루 및 콜롬비아에서 판매될 양말을 짜고 있다. 그녀는 수입의 일부를 과야킬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남동생을 돕는 데 쓰고 있는데, 가르시아 자매는 그 남동생을 통해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녀는 “저는 회원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도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제 자신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지는 몰랐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금 가르시아 자매는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도움에 대해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야킬에 있는 남동생에게 선교 사업 비용을 보낼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다.

### 과야킬

에콰도르의 최대 도시이자 교역의 중심지이면서 삼대 항구 도시 중 하나인 이곳은 급속히 발전하다가 이제는 침체에 접어들어 신흥 도시처럼 보인다. 과야킬은 바나나 수출의 중심지이면서 어업과 새우 잡이의 전진 기지이기도 하지만, 새우 어장의 어획 감소를 인해 새우잡이는 크게 타격을 입었다.

과야킬은 마치 자석과도 같이 일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곳의 발전은 시설 투자를 제공하는 지방 정부의 행정 능력을 훨씬 앞질러 왔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상하수도관이 충분치 못해서 수도국이 온종일 양수기로 강에서 물을 퍼내서 수조 트럭에 실어 나르기도 한다.

중장비 업체의 사주이자 에콰도르 과야킬 남 스테이크 부장인 호세 가브리엘 알바레스의 말에 따르면, 교회 회원을 포함해 도시 전체 인구의 70%가 빈민층이라고 한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실업과 빈곤으로 인해 범죄 발생이 빈번하다.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연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우호적이고 솔직한 성격이 이 도시의 분위기를 결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에콰도르에서는 과야킬에서 교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약 2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말일성도는 만 육천 명이 조금 넘는다. 과야킬에는 18개의 예배당이 있으며, 앞으로 더 세울 계획이다.

이렇듯 빠른 성장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에콰도르 과야킬 북스테이크 부장단 제2보좌인 지미 올베라 형제는 웃으면서 “우리는 좀더 많은 지도자와 선교사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이곳에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는데 처음부터 도움을 준 오래된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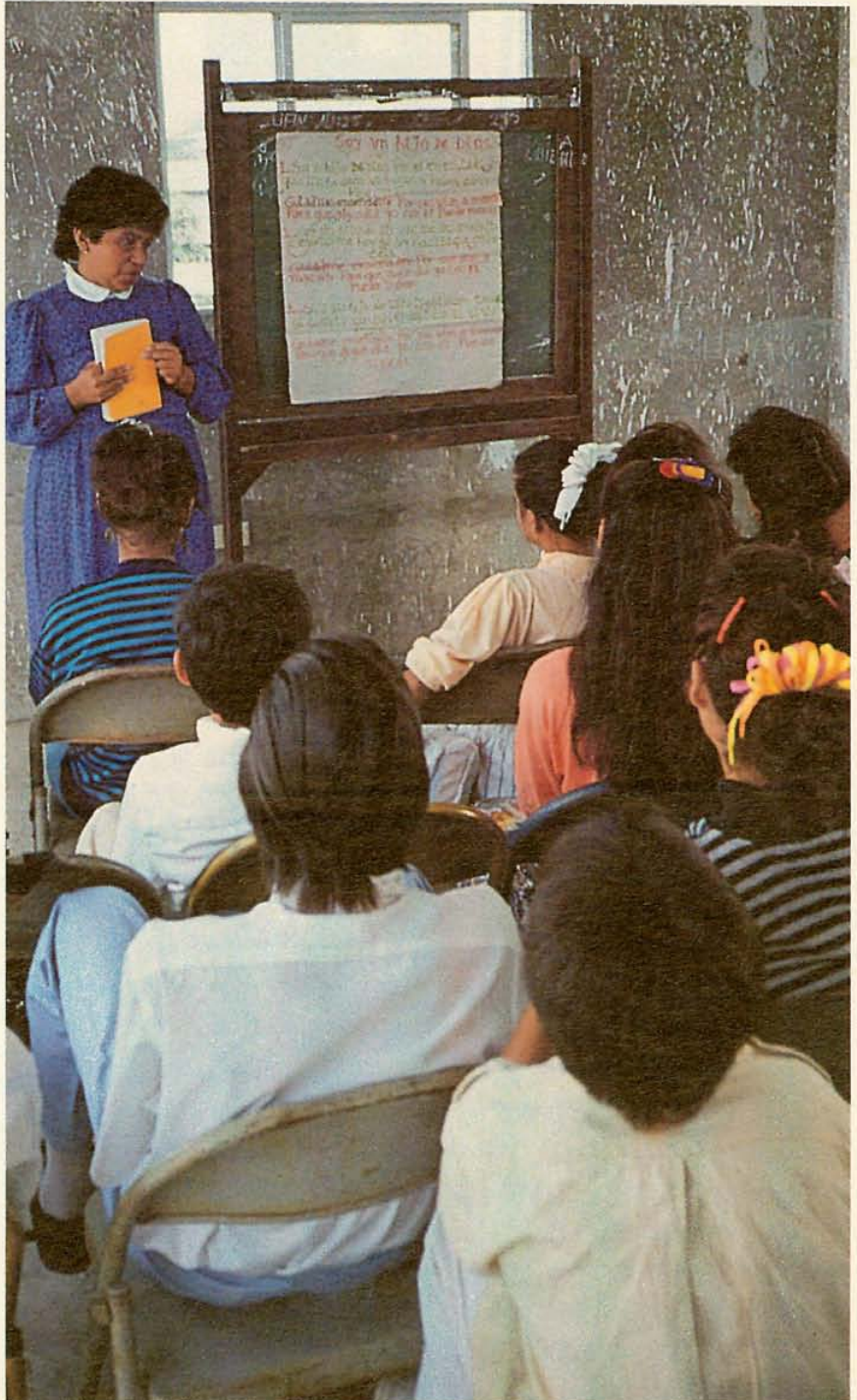


원들이 있다. 아달베르토 토레스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1969년 어느 날 밤 그는 두 권의 책에 관한 꿈을 꾸었는데, 하나는 성서였고 그 옆에 나란히 있는 것은 전에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책이었다. 4개월 뒤 그는 두 명의 선교사가 자신의 친구에게 선교사 토론을 가르치는 곳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그 두 번째 책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물론경의 첫 구절을 읽는 순간부터 그는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침례를 받고난 후 그의 아내는 남편이 과연 옳은 일을 했는지 의문이 갔다. 하지만 꿈이 그녀에게도 확신을 심어 주었다. 그녀는 성서를 공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는데, 전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도 남편이 걸은 진리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에콰도르 과야킬 서 스테이크의 축복사인 토레스 형제는 그곳의 많은 회원들이 “복음을 미쳐 깨닫기도 전부터 교회에 대해 간증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회원들은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한다. 이를 지켜 본 사람들은 말일성도들의 행복과 영적인 힘의 근원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토레스 형제 부부는 복음이 열 두 자녀들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게



맨 왼쪽: 카를로스 프리아스와 프란시스카 프리아스, 두 사람 다 귀환 선교사이다. 카를로스는 에콰도르 과야킬 중부 스테이크 산하 살라도 제일 와드 감독이다. 왼쪽: 과야킬

독신 성인 주일학교반, 아래: 과야킬의 라우라 기레로가 임대해 집회소로 사용하고 있는 집에서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고 있다. 기레로 자매는 세미나리도 가르친다.

했다. 헨리 토레스는 최근 콜롬비아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다. 헨리는 선교 사업을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는 어느 한 순간이라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다. “주님은 결코 그 일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그처럼 급속히 성장한 것으로 인해, 많은 젊은 회원들이—헨리 토레스처럼 문자 그대로 나이가 얼마 안된 회원들과 복음에 접한 지 얼마 안된 회원들—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곳 지도자들은 산디아고 레온과 그의 아내 라켈 플라야스 레온 같은 부부들이 성전 결혼이라는 표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모범을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산티아고와 라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가족 중에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페루리마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기만 해도 전 행복했습니다. 하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의 오두막집

안방 벽에는 워싱턴 성전 사진이 걸려 있으며, 그 아래에는 “에콰도르여 성전을 갖기 위해 너 자신을 준비하라.”고 손으로 적은 표어가 있다.

복음에 뿌리를 내린 사랑은 카를로스 프리아스와 그의 아내인 프란시스카의 생활에 빛을 발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귀환 선교사이다. 카를로스는 과야킬 중부 스테이크 산하 살라도 와드 감독이고 프란시스카는 와드 청년 회장단 보좌이다. 그들은 어린 아들 셋을 두고 있다.

프리아스 감독 부부는 모범적인 생활로 인해 젊은이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프리아스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가르쳐 줄 수야 있겠죠.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훌륭한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배우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일 해서는 안될 일을 한다면, 그들은 제가 자신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이를 행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는 아주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는 회원들의 도움에 감사한다.

프리아스 감독 부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회원이었지만, 뒤늦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다.

1988년에 회원이 된 에르네스토 메르찬은 소속 와드 감독단 보좌이며, 그전에는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한 적이 있다. 그는 “주님께서 경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고 명하셨”으므로(마태복음 5:6 참조) 자신의 침례 성약을 준수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메르찬 형제는 친척들이 복음의 빛을 보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

메르찬 형제의 아내는 그가 이 년 동안 교회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교회 회원들이 그녀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나서, 복음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침례받은 지 꼭 일년 만에 카르멘 메르찬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부름을 수행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느끼는 한,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소속 회원들이 가난 같은 것은 두려워할 요인이 못된다고 그녀는 말한다. 또한 구세주께서 가르치셨듯이 “저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메르찬 자매는 덧붙인다.

에르네스토 메르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곳 에콰도르에서나 다른 어느 나라에서나 주님은 한 분이시며, 복음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

# 월포드 우드럽

신앙과 열정의 인물

레온 알 하트슨



**월**포드 우드럽은 성신의 지시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위대한 열정과 신앙을 보인 훌륭한 모범인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끌어야 했기 때문에 남달리 강인해야 했고 주님께 의지해야 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님이 1887년을 일기로 별세하셨을 때, 월포드 우드럽은 복수 결혼에 관한 문제로 교회와 미국 정부가 대립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교회 재산을 압류해 버렸으며, 수많은 가장과 지역 지도자들이 투옥되거나 피신해 있었습니다. 아이다호주의 성도들은 투표권을 박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드럽 장로가 교회 제4대 대관장이 되고 직면하게 된 상황을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교회의 제반 업무를 인도해 가면서도 연차 대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피신지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월포드 우드럽은 이 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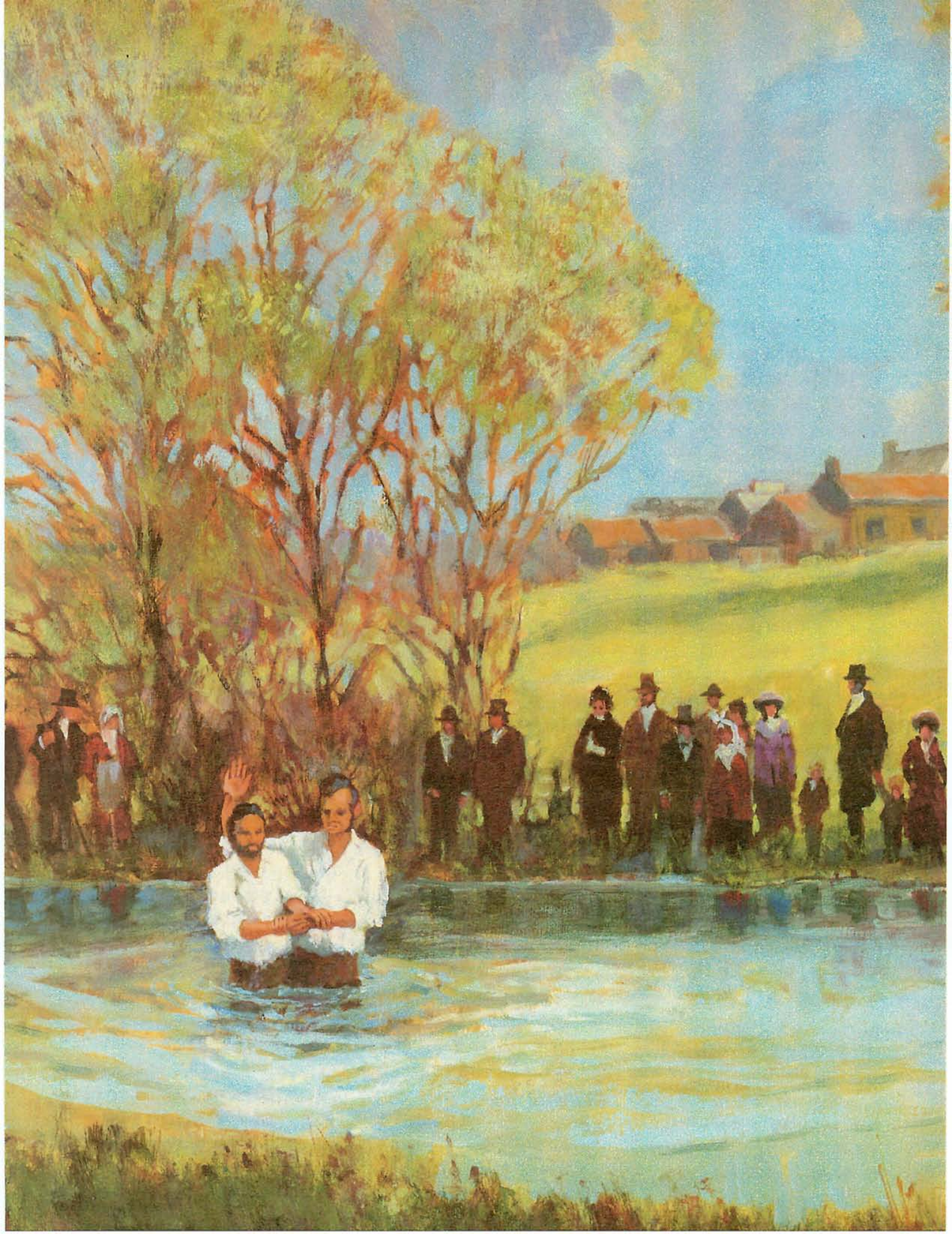
난한 시기 동안 교회 대관장으로서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곡히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우드럽 대관장은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준비를 훌륭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을 믿게 됨

월포드 우드럽은 일찍부터 주님의 권능을 마음속 깊이 믿어 왔습니다. 자신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많은 재난과 역경을 겪어 왔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세 살 때 끓는 물이 담긴 큰 솥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창고의 대들보에 올라갔다가 맨 땅으로 거꾸로 떨어진 적도 있으며, 또 계단에서 떨어져 양팔이 부러진 적도 있습니다. 황소의 뒷발에 배를 채인 적이 있었으

며, 건초를 잔뜩 실은 마차가 전복하는 바람에 건초 더미 속에 파묻힌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말이 놀라서 뛰는 바람에 마차 위에 타고 있다가 마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4.5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 강물에 빠져 의사 직전에 구출되기도 했으며, 겨울에 추위를 피하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사과 나무에 오목히 파인 흠통 속으로 기어 들어가다가 행인의 눈에 띄어 동사 직전에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다가 왼쪽 발등을 도끼에 찍힌 적도 있었으며, 공수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적도 있고, 겁에 질려 달아나는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양쪽 관절이 상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그가 20세가 되기에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우드럽 장로는 영국에서의 첫 선교 사업을 하는 중에 존 벤버우 농장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으로 가 수백명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이들을 개종시켰다.



후에도 그는 물레방아 꼭대기에서 두 번이나 떨어져 압사 직전에 목숨을 건진 적이 있으며, 놀라 달아나는 말에 질질 끌려 다닌 적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겨냥하고 당겨진 총의 불발로 인해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으며, 나무가 떨어져서 가슴을 치는 바람에 가슴뼈와 갈비뼈 세 개가 부러지고 왼쪽 정강이와 둔부와 팔에 심한 상처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일찍부터 주님의 권세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고 믿게 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후일에 이러한 일들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이 땅 위에 살게 된 것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가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 나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사려깊은 젊은이였던 그는 옳은 일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십대의 어린 시절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지금 나와 같은 연령은 모든 사람의 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기간 동안 영원토록 지속될 성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초년기를 보내는 데 얼마나 주의 기울여야 할는지 모를 정도이다. 나는 영광과 영생으로 이끄는 길을 가도록 보살핌과 분별력과 세심한 주의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 진리를 찾음

윌포드 우드럽은 항상 기도으로써 주님의 인도를 구하다가 마침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 들은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떨시퍼 장로가 기도로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태도나 그 기도에서 보여진 영향력에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게 임하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찬송을 한 다음 떨시퍼 장로는 사람들에게 약 한 시간 반 정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며, 그는 몰몬경의 진실함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사명을 간증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다 믿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사실임을 성령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

“그런 다음 장로들은 누구든 지금까지 그들이 가르친 내용에 찬성한다거나 혹은 반대한다거나 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영은 제가 이들 장로들로부터 들은 메시지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이들에 반대하지 말라고 권고했

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들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그날 밤 예수의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동생 아즈몬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비슷한 간증을 하였으며, 이어서 몇 명이 더 간증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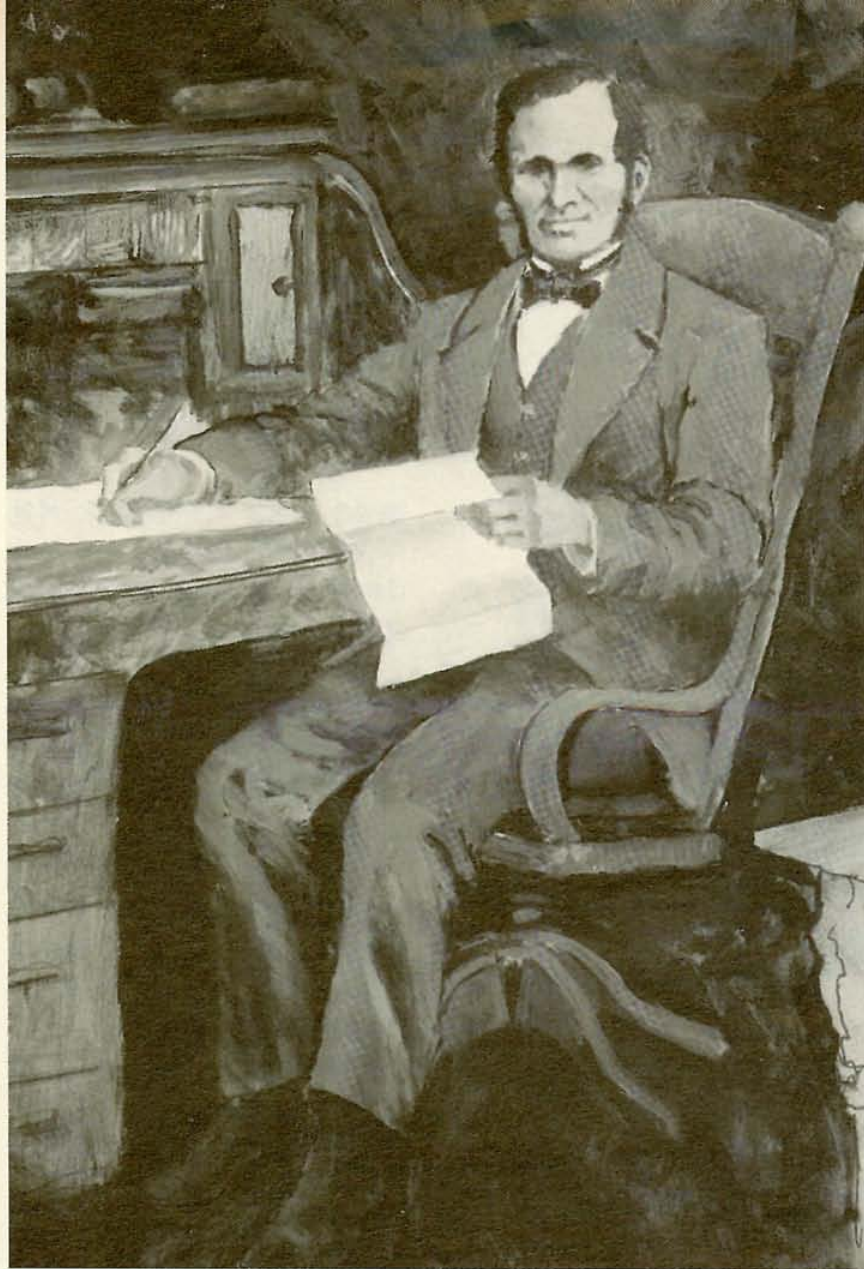
이 일이 있던 지 삼일 만에 몰몬경을 세밀히 검토하고 그는 1833년 12월 31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때의 상황을 적었습니다. “눈이 삼 피트 정도 쌓였고 날씨는 몹시 추웠으며 물은 얼음과 눈으로 섞여 있었지만 저는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 역사를 기록함

침례를 받은 후 곧 그는 커틀랜드로 가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만났습니다.

커틀랜드에서 그는 다른 새로운 회원들과 함께 예언자를 따라 시온의 진영에 속하여 행군해 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교회사의 중대 사건들을 기록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후일에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악마는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저의 생명을 노려 왔습니다. 저는 적의 표적물이 되어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는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악마는 제가 말일성도 예수



“나는 적의 표적물이 되어온 것 같았습니다... 악마는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교회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온 백여 명의 마지막 무리와 함께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땅거미가 질 무렵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며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막 떠날 차비를 갖춘 기선을 보고, 저는 선장에게 달려가서 몇 명이나 승선했는가를 물었습니다. ‘삼 백 오십 명’이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백 명만 더 태울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이죠.’ 하며 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 배를 타지 말라. 너나 동료들 중 아무도 타지 않도록 하라’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저는 지시에 따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조용하고 작은 음성에 관해 배운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기선에 타지 않고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선이 떠난 지 30분 만에 기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해안까지 나오지 못한 채 캄캄한 밤에 바다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면 저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교회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고 예언자나 사도들이나 장로들의 업적이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예언자 요셉으로부터 들은 모든 설교나 가르침을 빠짐없이 기록하였으며, 브리감 영 대관장의 여러 가지 설교문과 울슨 하이드, 팔리 피 프랫 등의 설교문을 기록하였습니다. 초기에 제가 그러한 기록을 하도록 부름받은 또 다른 이유는 그 당시 기록을 담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역사가들이 배도를 하면서 일지를 가지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 “영의 지시를 받아”

시온의 진영의 행군이 끝나자마자 젊은 윌포드는 곧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미국 남부, 캐나다, 미국 북동부 등지에서 선교 사업을 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았습니 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임지에서 떠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뉴잉글랜드와 캐나다에서 2년반 동안 있는 후 저는 성도들을 이끌고



세인트 조지  
성전에서 “죽은  
자들의 영이 나타나  
왜 그들을 구해  
주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미국 독립  
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36명을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부름에 따라 그와 다른 형제들은 수많은 개종자들을 데리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 성령의 음성을 따름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우드럽 장로는 나부에서 성전 건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성도들을 록키 산으로 이동시키는 데 앞장 섰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신앙심과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통해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영적인 경험은 윌포드 우드럽이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웠나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 “저의 임무는 계시의 영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저는 전과 같은 조용하고 작은 음성에 의해서 폭스섬(미국 북동부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커틀랜드에 있던 대배도의 기간 중에도 주님의 영은 ‘동반자를 데리고 폭스섬으로 가라’고 지시 하셨습니다. 저는 폭스섬이 어떤 곳 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 갔으며 백여 명을 개종시켰습니다.”

— 한 번은 심한 풍랑을 만나 “장님 처럼 더듬거리고 있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우리 주위를 비추어 주었으며, 우리가 낭떠러지의 벼랑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 갈 때까지 빛이 계속 비추어 주었습니다. 다시 어두워

“저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러한 성령의 지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팔 소리도 아니고 천둥이나 번개 같은 소리도 아니었으며, 조용하고 작게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서른 두 살이 되던 1839년에 미주리주 파웨스트에서 사도로 성임 되었습니다.

### 복음을 전함

많은 교회의 회원들은 그를 위대한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허버 제이 그랜트는 그에 관해 “아마도 [윌포드 우드럽은]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회 보고, 1942년 4월) 그는 이미 두 곳에서 선교 사업을 했지만 1839년에 영국에서의 선교 사업이 가장 유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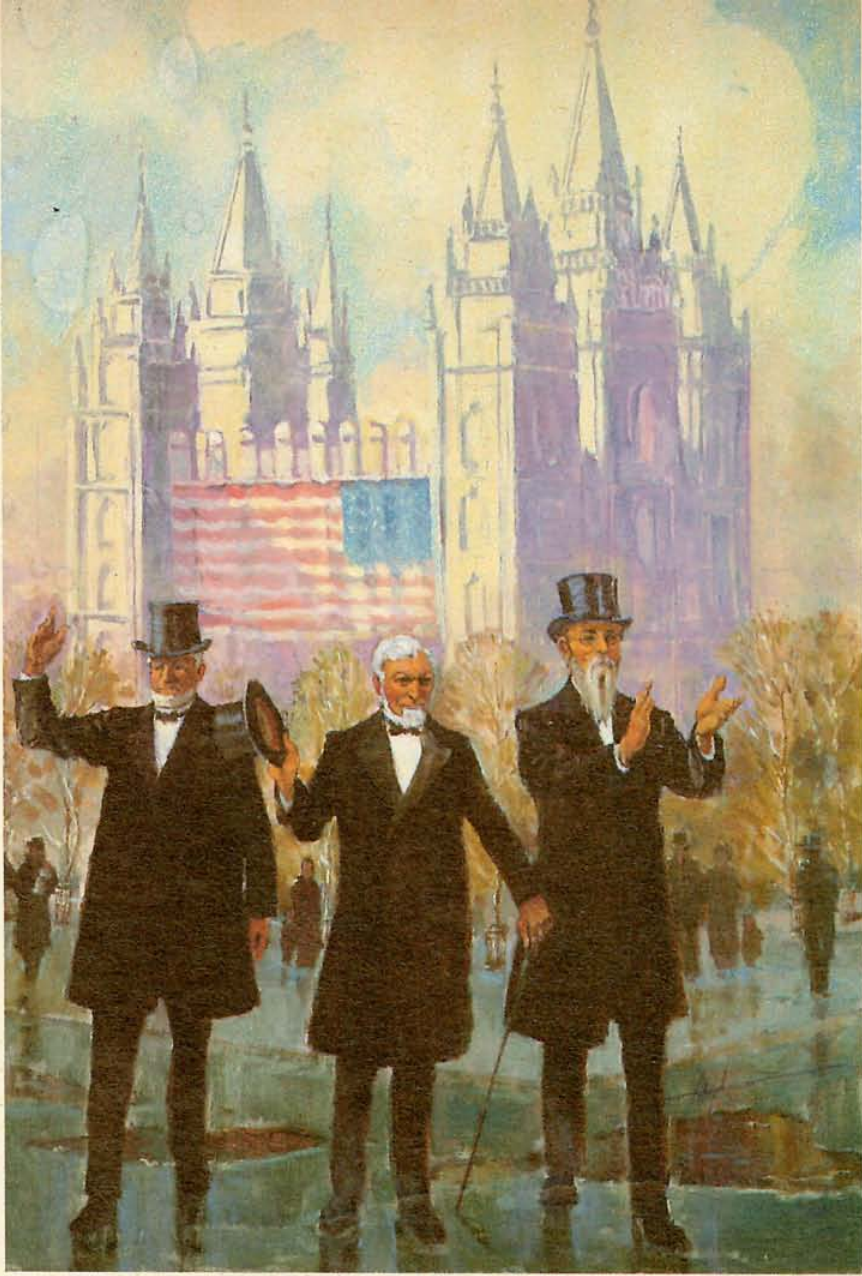
서른 세 번째 맞는 생일날 윌포드

우드럽은 영국의 헨리라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복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남쪽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으므로 그는 매우 놀랐으나, 지시대로 버밍햄 외곽 존 벤바우 농장으로 갔습니다. 유나이티드 브레드런이라고 알려진 일단의 그룹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올 주님의 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 가운데에서만 그는 45명의 목사와 160명의 신자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우드럽 장로를 체포하라는 명을 받고 찾아온 경찰 가운데 한 명이 이 활기에 찬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을 살피기 위해서 밀사로 보내진 두 명의 영국 교회 지역 역원이 그의 손으로 침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1840년 한 해에





성조기가 성전에 걸려있는 그림은 역사 사진을 기초하여 그린 것임

지고 비가 계속 되었지만 우리는 기뻐하면서 계속 길을 걸었습니다.”

— 언젠가는 그와 그의 가족이 마차를 세워 두고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일어나서 마차를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희오리 바람에 뽑힌 큰 나무가 그의 마차가 서 있던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 선교사로 런던에 있을 때 그는 사탄에 관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탄이 저에게 덤벼들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도움을 간구했습

니다. 저는 심한 상처를 받았지만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후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저를 찾아왔으며, 저는 즉시 모든 상처가 나아 고통을 잊게 되었습니다.

— “제가 세인트 조오지를 떠나기 이 주일 전에 성전에서 죽은 자들의 영이 나타나 왜 그들을 구해주지 않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당신들이 마음놓고 살도록 정부의 기초를 다 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배신한 적이 결코 없소. 우리는 항상 성실했고 하나님께 진실했다

1896년 1월 4일, 유타주가 미국의 45번째 주가 되었다. 우드럽 대관장과 두 보좌인 조지 큐 캐넌 부대관장 및 조셉 에프 스미스 부대관장이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다. 새로 헌납된 솔트레이크 성전에 대형 성조기가 걸려 있다.

오.’

“이들은 미국 독립 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을 주야로 저를 방문하였습니다. ... 저는 곧 바로 침례반으로 가서 맥알리스터 형제를 만나 이들 서명자를 위해 저를 대신 침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저명한 인사 50여명까지도 합쳐 모두 백여 명을 침례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시간과 정력을 결코 낭비한 적이 없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될 박해를 겪으면서도 그는 미국 남서부에 있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들 인디언을 무척 사랑하고 아꼈으며, 그 당시 그의 나이가 칠십 이 세였지만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사냥하고 낚시질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요 하나님의 사자인 우드럽 대관장은 아의 활동을 대단히 즐겼습니다.

잠시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해져서 은신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985년, 사랑하는 아내인 피베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대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합당하게 성도들을 이끌도록 주님께 정성을 다해 간구하였습니다. 1890년 9월 25일 우드럽 대관장은 복수 결혼 중단에 관한 주님의 뜻이 담긴 그 유명한 선언문을 세계 만방에 발표하였습니다. (교리와 성약, 선언문 참조)

미국 정부의 박해가 줄어들던 우드럽 대관장은 재직 말년에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했으며 1893년 4월 6일 유다가 주로 승격됨으로써 성도들이 그들의 지역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드럽 대관장은 구십 일 세를 일기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이웃과 주님을 동시에 잘 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175,000마일 이상을 여행하였고 2,000여명을 침례하였으며 7,000여 쪽에 달하는, 62년에 걸친 교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일생을 사는 동안 그는 선교사, 방앗간 주인, 인쇄업자, 농부, 개척자, 식민지 건설자, 정치가, 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 등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은 위대한 신앙에 위대한 열정이 더하여 위대한 경험을 낳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일 생활 가운데서 성령의 증거를 갈망한다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 윌포드 우드럽의 생애, 1807~1898

연도	나이	일어난 일
1807년		3월 1일 : 코네티컷주 파밍톤에서 출생.
1821년	14세	방앗간에서 일함.
1833년	26세	12월 31 : 침례받음.
1834년	27세	시온 진영의 행군에 참여.
1834~36년	27~29세	미국 남부 여러 주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37년	30세	피베 카터와 결혼.
1837~38년	30~31세	미국 동부 여러 주와 폭스 섬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39년	32세	4월 26일 : 사도로 성임됨.
1839~41년	32~34세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함.
1842년	35세	타임즈 앤드 시즌스 영업 부장이 됨.
1843~44년	36~37세	미국 동부에서 선교 사업을 함; 요셉 스미스의 순교 소식을 들음.
1844~46년	37~39세	유럽 선교부장으로 봉사함.
1847년	40세	7월 24일 : 브리감 영과 함께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
1848~50년	41~43세	미국 동부의 교회를 관리함.
1850년	43세	지역 입법 의원에 임명됨.
1856년	49세	교회 역사 편찬 의원으로 부름받음.
1877년	70세	세인트 조오지 성전장이 됨.
1879년	72세	은둔 생활을 하던 동안 아메리칸 인디언들 가운데서 선교 사업을 함.
1887년	80세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됨.
1888년	81세	5월 17일 : 맨타이 성전을 헌납함.
1889년	82세	교회의 대관장으로 지지됨.
1890년	83세	복수 결혼을 중단하는 "선언문" 발표.
1893년	86세	4월 6일 :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함.
1898년	91세	9월 2일 :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별세

### 자료

1. 윌포드 우드럽의 일기 및 기록,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기록 보관소 소장.
2. "윌포드 우드럽의 생애", *데저렛 뉴스* 8, 18~22번(1858년 7~8월)
3. "윌포드 우드럽 자서전", *톨리지스 쿼터리 매거진* 3(1883년 10월~1884년 7월)
4. 윌포드 우드럽, *나의 일기에서 뽑은 이야기*, 솔트레이크시티 : 청소년 인스트라터 편집국, 1881년
5. 마티아스 에프 카울리, 윌포드 우드럽,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4년.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성전을 건립하는데 40년 이상 걸렸다.  
이 달은 1893년 4월 6일 윌포드 우드런 대과장이 허난하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달이다.



교회 소유 예배당에서 만나든 전세 건물에서 만나든  
“지구의 한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자신들의  
삶의 질이 더욱 훌륭하게 변화되었다고 간증한다.  
“에콰도르”, 32쪽 참조